

# 錄 取 書

녹 음 일 시	2014년 4월 16일 9시 5분 ~ 12시 1분
녹 음 장 소	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전화 녹취록
대 화 자	본문 기재
녹 취 분 량	표지 外 51쪽

본 녹취록은 녹음CD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함.

2016년 4월 19일

속기법인 대한

(사업자등록번호 : 264-81-30602)

속기사 林鍾憲 ㉞

(자격번호 : 06-G2-000008)

- ▶ 본 녹취록은 녹음일시, 장소 및 대화자,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,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.
- ▶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침삭이나 일부 사투리,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음.
- ▶ '\*\*\*' 표시는 청취불능 표시임.



◆ 녹음 순번 : #0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05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박동순 / 서해청 특공대 이상진

이상진 : 감사합니다. 특공대 이상진 경장입니다.

박동순 : 예. 고생하십니다. 팀장님 계세요? 상황실입니다.

이상진 : 아, 지금 성과보고 회의 들어가셨습니다.

박동순 : 예. 다름이 아니라 지금 목포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거차도 밑에 여객선 하나가  
지금 침몰 중에 있거든요. 승객이 300명 이상이 편승해 있답니다.

이상진 : 300명 이상이요?

박동순 : 예. 지금 인천에서 제주 가는 여객선인데 세월호라고 세월호. 300명 이상 승객이  
편승해 있는데 여객선이 침몰 중에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, 목포에서.

이상진 : 예, 예.

박동순 : 예. 우선 참고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게 있으면 준비를 좀 일단 해 놓으시는 게  
나을 것 같아서요.

이상진 : 예, 알겠습니다.

박동순 : 예.

이상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16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박동순 / 목포서 항공대

남자 1 : 항공대 최 경위입니다.

박동순 : 예. 지방청 상황실입니다. 박 경사인데요. 청장님이 헬기 요 앞으로, 펜더 앞으로  
좀 대랍니다.

남자 1 : 헬기가 지금 현장으로 왔는데요.

박동순 : 아, 현장으로요?

남자 1 : 예. 그거 511호기가 구조하러 가고 512호기는 지금 3009함에 있어가지고 지방청  
장님한테 델 수가 없어요. 그럼 구조를 못 해요.

박동순 : 예. 512호기도 지금 가거도 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.

남자 1 : 예. 2호기도 지금 바로 떠가지고 현장으로 가라 그랬거든요. 그런데 좌표가 조금  
달라요. 관매도하고 맹골도 사이라고 들었는데 좌표를 찍어보니까 조금, 조금 만  
재도 쪽인데.

박동순 : 예, 예, 그렇죠. 지금 위치는 34도 10분, 125도 57분.

남자 1 : 잠깐만요. 3411.

박동순 : 3410, 125도 57.

남자 1 : 아, 예, 알겠습니다.

박동순 : 그러면 지금 그 헬기 못 돌리는가요?

남자 1 : 아유, 구조하러 가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요?

박동순 : 그렇죠. 예, 알겠습니다, 일단. 그렇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 이미 나가가지고 없어요.

박동순 : 예, 예.







◆ 녹음 순번 : #0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17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박동순 / 서해청 항공단

남자 1 : 예.

박동순 : 예. 상황실인데요. 청장님께서 찾으십니다.

남자 1 : 누구 찾아요?

박동순 : 지금 항공대, 항공단 빨리 오십시오. 아무나 오십시오.

남자 1 : 항공단?

박동순 : 예.

남자 1 : 어디로? 상황실?

박동순 : 예, 상황실입니다, 상황실.



◆ 녹음 순번 : #0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17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박동순 / 완도 상황실

남자 1 : 상황실입니다.

박동순 : 예. 지방청입니다.

남자 1 : 예, 예.

박동순 : 완도서 지금 경비함정 출항시간하고 ETA 좀 빨리 불러주십시오.

남자 1 : 예.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거의 다 현재 됐고요.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

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.

박동순 : 예. 빨리 파악하세요.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27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박동순 / 전남청 112관리팀

박동순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박동순 경사입니다.

남자 1 : 서해청이죠?

박동순 : 예.

남자 1 : 예, 전남청 112관리팀의 이성환 경위입니다.

박동순 : 예.

남자 1 : 뭐 좀 여쭙보려고요. 저희 신고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요. 그 여객선 신고된 거  
그거 혹시 상황보고서 작성하셨나 해서요.

박동순 : 상황보고서 지금 구조 지시만 내려간 거 있어요.

남자 1 : 구조 지시만?

박동순 : 예, 예.

남자 1 : 그러면 그거 전남청으로 한번 보내주실 수 없나요?

박동순 :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박동순 : 예.

남자 1 : 그럼 지금 저희가 응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요. 해경 배가 몇 대나 출동했습  
니까?

박동순 : 지금 저희도 다 지시만 내리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\*\* 헬기 띄웠나요?

박동순 : 헬기 지금 2대 가고 있고 고정익 비행기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.

◆ 녹음 순번 : #0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28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박동순 / 전남청 강력계

박동순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박동순 경사입니다.

남자 1 : 서해청인가요?

박동순 : 예.

남자 1 : 저희 전남청 강력계 양 주임인데요.

박동순 : 예. 방금 전화 왔던데.

남자 1 : 어선 여객선 그거 침몰 들어옵니까?

박동순 : 예. 바쁘니까요. 아까 전남청 112에서 왔었습니다. 좀 많이 바쁘거든요.

남자 1 : 아, 그랬어요?

박동순 : 예, 예.

남자 1 : 아, 바쁘다고요?

박동순 : 예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0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박동순 / 서해어업관리단

박동순 : 예. 서해청 박 경사입니다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여기 서해어업관리단입니다.

박동순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\*\* 침수 침몰 선박 여객선 있지 않습니까?

박동순 : 지금 나갔잖아요. 안 나갔습니까? 팩스로 안 들어갔어요?

남자 1 : 받았습시다. 받았고요. 저희 무궁화 33호, 14호가 아마 그쪽으로 이동 중인데,

박동순 : 33, 14호요?

남자 1 : 예, 무궁화 33호, 14호. 그런데 지금,

박동순 : 잠시만요. 제가 바꿔드릴게요.

남자 2 : 여보세요?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상황실의 김 경위입니다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예. 지금 33호, 14호 그쪽으로 이동 중에 있는데 거리가 한 67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

남자 2 : 33호,

남자 1 : 14호요.

남자 2 : 33호, 14호가?

남자 1 : 예. 67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. 도착시간은 지금부터 4시간 이후 될 것 같습니다.



남자 2 : 67마일이요?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

◆ 녹음 순번 : #0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4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서해청 홍보계

여자 1 : 감사합니다. 홍보계입니다.

남자 1 : 예. 상황실인데요.

여자 1 : 예.

남자 1 : 여객선 지금 침몰 중입니다. 지금 빨리 오십시오.

여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청장님 찾으십니다.

여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7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항공팀장 / 군산청 항공대장

여자 1 : 감사합니다. 군산 항공대입니다.

남자 1 : 예. 항공대장은?

여자 1 : 예.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.

남자 1 : 통화 중?

여자 1 : 예.

남자 1 : 그래요?

여자 1 : 예. 잠깐만요. 다 끝났을 것 같아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여보세요?

남자 1 : 예. 어디로 갑니까?

남자 2 : 아, 병풍도 그거 좌표를 좀 문자로 넣어주세요, 휴대폰으로.

남자 1 : 병풍도 문자를?

남자 2 : 예. 사고 현장 아무 상황을 모르잖아요, 지금.

남자 1 : 여보세요? 34-11.

남자 2 : 잠시만요. 잠시만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예. 다시 불러주세요.

남자 1 : 34 노스 11, 그다음에 125에 56 그렇게 됩니다. 병풍도,

남자 2 : 알겠고요.





남자 1 : 잠깐만. 병풍도 북방 1.5마일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승선원 350명, 세월호.

남자 2 : 그리고 구조대 빨리 좀 군산 상황실에 얘기해가지고 구조대 빨리 이동시켜 주세요. 우리 시동 다 걸었거든요.

남자 1 : 어디? 군산 항공대?

남자 2 : 아니, 군산 상황실에 전화해가지고 구조대를 이쪽 보내야지 우리가 타고 가지. 그렇잖아요.

남자 1 : 여기서 얘기해야지 더 빠를까, 그쪽이 더 빠를까?

남자 2 : 아니, 우리가, 내가 구조대를 오라 마라 얘기 못하잖아요. 상황실에서 지시해야지, 상황계통으로.

남자 1 : 아니, 몇 명? 몇 명 타기로 얘기 안 돼 있습니까?

남자 2 : 아니, 뭔 얘기가 돼요. 아무 얘기도 없는데 지금. 상황실장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이륙하라고만 그러고. 아, 구조대 태우고 이륙하라는데 구조대를 우리가 오라마라, 태우라 마라 우리가 어떻게 지시를 하냐고? 상황실에서 지시가 돼야지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남자 2 : 아, 상황실 \*\*

남자 1 : 아니, 구조대 가용인원을 빨리 태워서 이륙하는 게 맞지.

남자 2 : 아니, 우리가 어떻게 와서 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? 상황계통으로 얘기해 줘야지, 전남 상황실에다가.

남자 1 : 아, 나, 참 나... 알았어요.





◆ 녹음 순번 : #1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9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서해어업관리단

남자 2 : 서해청 상황실입니다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여기 서해단의 김\*\*입니다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예. 저희 아까 2척 간다 그랬는데 1척 더 갑니다. 24호도 아마 갈 것 같습니다.

남자 2 : 한번 불러주실래요, 다시 한 번. 24호,

남자 1 : 14호, 24호, 33호 그렇습니다.

남자 2 : ETA는 어떻게 나오나요?

남자 1 : ETA는 지금 저희가 거리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요. 지금 14호, 33호는... 잠시만  
요. 한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14호, 33호 도착 예정이고요.

남자 2 : 1시간 후에요?

남자 1 : 아니, 아니요. 1시, 14시 30분 이후에요.

남자 2 : 아, 예.

남자 1 : 왜냐면 거리가 좀 있어서, 저희는 가거도 쪽에서 가고 있고요. 24호는 오늘 출항  
일인데 지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출항해서 그쪽 가가지고 도착 예정시간이 아직  
안 나오네요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감사합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1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1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항공팀장 / 군산청 항공대 추미란

추미란 : 감사합니다. 군산 항공대입니다.

남자 1 : 예. 항공대장 좀 바꿔봐.

추미란 : 예. 대장님 \*\* 내려가셨는데요.

남자 1 : 아니... 지금 추미란 씨 가가지고 서해청으로 오라고 그러라니까.

추미란 : 서해청으로요?

남자 1 : 예, 예. 서해청 헬기장으로.

추미란 : 아~ 가라고요?

남자 1 : 예?

추미란 : 서해청으로 대기를 하라고요?

남자 1 : 응.

추미란 :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빨리 오라 그래. (전화 끊김)







◆ 녹음 순번 : #1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3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항공팀장 / 군산청 항공대 이택준

이택준 : 감사합니다. 군산항공대 이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그 502호기 이륙했는가?

이택준 : 예. 지금 시정 받고 구조대 지금 와가지고 태우고 있어요. 구조대가 와서 탑승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

남자 1 : 잠깐만, 잠깐만.

이택준 : 예.

남자 1 : 잠깐만 기다려봐. 이륙 아직 안 했지?

이택준 : 했는데요. 지금 뜨려고 문 닫았는데.

남자 1 : 목포 항공대로 오라고 내가 그랬는데, 목포 서해청으로.

이택준 : 예. 여기 구조대 지금 탑승했어요.

남자 1 : 몇 명?

이택준 : \*\*

남자 1 : 아, 좋아, 몇 명 탔어?

이택준 :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구조대 3명 탔어요.

남자 1 : 3명 탔고 서해청으로 오는 거예요?

이택준 : 목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, 목포 항공대.

남자 1 : 잠깐만, 잠깐만. 이리 오라 그래, 서해청 패드장으로.

이택준 : 지금 이륙해서, 방금 이륙해서 출발했습니다, 구조대 3명 태우고.

남자 1 : 아니, 서해청 패드장으로 오라고 하라니까.





이택준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서해청 패드장. 그러면 내가... 응, 그래.

이택준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7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항공팀장 / 군산청 항공대 이택준

이택준 : 감사합니다. 군산항공대 이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전달됐어?

이택준 : 예. 지금 지방청 패드로 갔어요, 구조대 태우고.

남자 1 : 몇 시에 이륙했어?

이택준 : 아까 저기...

남자 1 : 몇 시에 이륙했냐고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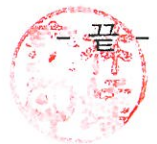
이택준 : 지금 한 3~4분 됐죠.

남자 1 : 3~4분? 그러면 9시 40분에 이륙한 거야?

이택준 : 예, 그렇죠.

남자 1 : 오케이. 알겠습니다.

이택준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8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항공팀장 / 목포서 항공대

남자 2 : 예. 항공대 최 경위입니다.

남자 1 : 지금 어때? 그 현장이 그게?

남자 2 : 예. 지금 511호기가 6명을 구조해서 서거차도 방파제로 이동 중에 있고요.

남자 1 : 서거차도.

남자 2 : 예. 그다음에 512호기는 5분 후에 현장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

남자 1 : 5분 후에 도착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6명은 뭐로 끌어올렸대?

남자 2 : 그것까지는 모르고요. 아마 착륙이 안 되니까 호이스트로 전부 다 올렸을 겁니다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 예.

남자 2 : 함정 TRS 가동하고 계시나요?

남자 1 : 예?

남자 2 : TRS 52번 가동하시면 그쪽에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응, 알았어. 계속 저기 뭐야, 여기 상황실이 질서가 지금 안 되거든, 혼란에 빠져 가지고. 계속 모니터링 좀 해 줘. 내가 전화할 테니 상황 좀 알려달라고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0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남자 2 : 예. 서해청입니다.

남자 1 : 수고하십니다.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

남자 2 : 여보세요? 예?

남자 1 : 해수부 상황실입니다.

남자 2 : 예, 예.

남자 1 : 지금 진행상황이 어때요? 사망자 있어요?

남자 2 : 아니, 지금 사망자는 아직 발생 안 됐고요. 배가 지금 기운 상태에서,

남자 1 : 몇 도 기울었어요?

남자 2 : 조금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남자 2 : 배가 기운 상태에서 함정들이 계속 도착해가지고,

남자 1 : 함정 도착 세력은 몇 척이에요?

남자 2 :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3척에 헬기도 도착돼 있습니다.

남자 1 : 4척하고 헬기하고. 지금 해경에서 인계받은,

남자 2 : 예. 지금 헬기가 6명 구조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.

남자 1 : 헬기가요?

남자 2 : 예. 그리고 경비정이 3척이 도착해가지고 여객선을 접안해가지고 구조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남자 1 : 아, 배는 혹시 기울어진,





남자 2 : 배가 지금 완전히 침몰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에요. 지금 여객선들이,

남자 1 : 언론에는 뭐 60도 기울었다고 막 그러는데.

남자 2 : 예. 지금 이동 중에 다 있고.

남자 1 : 그래요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입수자는 몇 명이에요, 그럼?

남자 2 : 입수자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입수자 안 나오고 있어요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빠진 사람 있긴 있네요, 그럼?

남자 2 : 빠진 사람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.

남자 1 : 아직 빠진 사람 없고?

남자 2 : 예. 배가 옆에 접안해 있다는 것이...

남자 1 : 아, 해경 헬기가 옆에 붙어 있어요, 그럼?

남자 2 : 예. 아니요, 경비정이요, 경비정.

남자 1 : 경비정이 옆에 붙어 있고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아, 그런데 어떻게 헬기로 구했어요?

남자 2 : 헬기가 지금 6명 구조했다고 나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방파제로 이동 중에  
있답니다.

남자 1 :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물에 뛰어든 사람 없고?





남자 2 : 예.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, 지금.

남자 1 : 그럼 배에서 함정으로 바로 옮겨 타고 있는 거예요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남자 2 : 예, 예.

남자 1 : 확실해요?

남자 2 : 예.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, 상황들을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3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항공팀장 / 목포서 항공대

남자 2 : 예, 항공대 최 경위입니다.

남자 1 : 변동사항이 뭐 있는가?

남자 2 : 50분 상황으로요. 배가 60도까지 기울어져 있고 123정에서는 한 50명 정도를 승선했습니다.

남자 1 : 지금 누구한테 정보를 받고 있어?

남자 2 : 지금 목포서 TRS 방송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응, 오케이. 그다음,

남자 2 : 52번으로 그룹에 가입하시면 바로 다,

남자 1 : 듣고 있어. 듣고 있다고. 그다음에 511호기는 6명 내려놓고 다시 이동 중인가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거기서 서거차도까지는 한 10분밖에 안 걸리네? 10분도 안 걸리는구먼?

남자 2 : 아, 예. 제일 가까운 데니까요. 5분이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.

남자 1 : 응. 그러면 다시 거기 현장에 복귀가 됐는지, 사고 현장으로.

남자 2 : 아, 교신할 때 또 나올 겁니다. 지금 여기서는 부를 수가 없거든요.

남자 1 : 알았어.

남자 2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1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YTN 기자

남자 2 : 예. 서해청입니다.

남자 1 : 예. 고생 많으십니다. 저 YTN 김주영 기자인데요.

남자 2 : 여보세요?

남자 1 : 저 YTN 기자인데요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지금 그 가라앉은 거 관련해서 여쭙보려고 전화 드렸어요.

남자 2 : 지금 좀 바빠요. 짧은 것만 말씀하십시오, 짧은 것만.

남자 1 : 현장에 헬기나 인원 몇 명이나 나왔어요, 인원? 현장에?

남자 2 : 예?

남자 1 : 서해청에서 출동하신 인원.

남자 2 : 출동한 인원이에요? 출동한 인원이 정확히 안 나오죠.

남자 1 : 함정, 함정.

남자 2 : 함정 현장에 지금 가 있는 세력들이 있거든요.

남자 1 : 몇 대 정도 돼요? 몇 척 정도? 대략, 대략, 대략.

남자 2 : 3척예요, 헬기 2척.

남자 1 : 3척, 헬기 2척.

남자 2 : 예. 그리고 지금 이동 중인 어선들도 있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. 여객선도, 옆에 가는 여객선도, 화물선도 하나 있고 어선도 13척이 있고, 그리고 해상에 나가 있는 경비함정들도 이동 중에 있습니다, 한 10여 척이.

남자 1 : 경비함정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중심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하시는 거죠?

남자 2 : 예. 목포 관할인데 지방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아, 지방청에서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지금 혹시요, 혹시 배 다 가라앉았나요?

남자 2 : 예?

남자 1 : 배 다 가라앉았나요?

남자 2 : 정확하게 아닙니다. 아닙니다.

남자 1 : 아닙니까?

남자 2 : 가라앉아 있지는 않고,

남자 1 : 구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?

남자 2 : 예,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길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거든요. 나중에 또 물어보십시오.

남자 1 : 하나만 여쭙볼게요. 이게 비행기로 갔다고 하던데,

남자 2 : 지금 길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.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.

남자 1 : 아,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3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전남경찰항공대

남자 2 : 예. 서해청 부실장입니다.

남자 1 : 아, 예. 여기 전남경찰항공대 박정호 경위입니다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저희 전남경찰항공대 참수리항공기가 곧 10분 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뭐 해경 SSU 요원 태우라고 그러는데 여쭙봤다고 그래가지고.

남자 2 : SSU요?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어디로 도착하십니까?

남자 1 : 서해해경청 헬기장으로,

남자 2 : 10분 후에 도착이요?

남자 1 : 10분 후에 도착합니다. 그 이후 태워가지고 저희가 어떤 임무 수행하면 되죠?

남자 2 : 예. 거기 가서가지고 지금 현재 여객선 침몰 중에 있는 여객선 선원들이 해상으로 뛰어내렸거든요.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걸 구조를 해야 됩니다.

남자 1 : 아,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10분 후에 도착이요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남자 1 : 예. 지금 해남이나 진도 한국병원에 되는가? 착륙이 가능한가, 헬기가?

최재영 : 어디, 어디 한국병원이요?

남자 1 : 해남, 진도 한국병원 거기 대형병원에 착륙이 가능하냐고 헬기가?

최재영 :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
남자 1 : 해남하고 진도하고.

최재영 : 해남하고 진도에 있는 한국병원이에요?

남자 1 : 응.

최재영 : 예. 그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.

남자 1 : 오케이. 빨리 확인하고.

지금 변동사항이 뭐 있습니까?

최재영 : 지금 정보는 헬기가 6명씩 3회 해서 18명을 구조했고요. 123정은 52명 지금 구조를 했고,

남자 1 : 6명에 3명이 511호기가 한 거예요?

최재영 : 아,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최재영 : 상황을 그냥 핵심만 하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그리고? 그리고?

최재영 : 그리고 123정에서는 52명을 구조를 했고요. 그리고 여기저기서 항공세력들이 다 이쪽으로 투입될 것 같습니다.

남자 1 :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. 좋습니다. 그건 좋고.

최재영 : 서해에서 부산 펜더가 떴고, 여수, 인천 뭐 이렇게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,

남자 1 : 알겠습니다.



최재영 : 이륙했다는 얘기는 아직,

남자 1 : 병원 먼저 파악 한번 해 봅시다.

최재영 : 완도하고 진도 병원,

남자 1 : 아니, 아니, 해남하고 진도.

최재영 : 해남, 진도 한국병원이요?

남자 1 : 예. 아니, 한국병원이 아니고 대형병원에 착륙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그걸 빨리  
알아봐 주세요.

최재영 : 예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2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제주청 상황실

남자 1 : 예. 제주청 상황실 천광욱 경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예. 사고해역 기상 좀 정확하게 불러주시겠습니까?

남자 2 : 기상요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기상은 지금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.

남자 1 : 저희 헬기하고 가야 되니까요, 시정도 지금 빨리 알아야 되는데 기상이 파악이 안 되면...

남자 2 : 기상 들어온 게 지금 현재 없네요.

남자 1 : 예?

남자 2 : 잠깐만요.

남자 1 : 예. 잠시만요.

남자 2 : 여보세요?

남자 1 : 잠시만요.

남자 2 : 저희가 기상을 목포에다 다시 한 번 물어보고... 좀만 이따가 다시 한 번 전화해 주십시오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8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채널A 기자

남자 1 : 예, 감사합니다. 서해청 부실장입니다.

남자 2 : 아, 예. 바쁘신데 죄송합니다. 채널A의 최석호라고 하는데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그 배 침몰된 거 있지 않습니까?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그 사진 좀...

남자 1 : 아, 지금 사진이 없습니다.

남자 2 : 다른 데 다 나오고 있는데요.

남자 1 : 저희가 여기 지금 상황실이라 상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지금 현재,

남자 2 : 그럼 어디다 전화 드리면 돼요?

남자 1 : 우리 서해청 홍보실에 전화 한번 해 보실래요?

남자 2 : 몇 번이죠? 2112이 안 받아서 그러거든요.

남자 1 : 아마 거기도 아마 지금 다 나가가지고 현장으로.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.

남자 2 : 번호만 좀 알려주세요, 그러면.

남자 1 : 잠깐만요.

2512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?

남자 2 : 예?

남자 1 : 2512.

남자 2 : 2512이요?

남자 1 : 예. 한번 해 보시고.

남자 2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0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구조센터

남자 1 : 예. 감사합니다. 서해청 부실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구조센터 홍\*\*라고 합니다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예. 저희가 의료기관 관리를 하고 있고 재난 관련해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 
상황입니다. 그래서 구조자 이송 상황이란 그리고 저희 의료진 대기 상황이란  
닥터헬기 대기 상황 이 부분을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.

남자 1 :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161명 지금 파악됐거든요, 477명에서.

남자 2 : 477명에서 뭐를,

남자 1 : 161명.

남자 2 : 구조하셨다고요?

남자 1 : 예. 그리고 일반 민간선박도 있고 우리 경비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정확한  
인원수는 안 나옵니다. 161명 현재,

남자 2 : 예. 저희가 의료인력이 병원에서 출동해서 팽목항에서 대기하면 되나요?

남자 1 : 예. 팽목항하고 그쪽에 계시면 될 것 같네요.

남자 2 : 예?

남자 1 : 예. 그쪽에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.

남자 2 : 팽목항으로 그러면 이송을 하실 계획이세요?

남자 1 : 예. 그쪽으로도, 경비정들이 그쪽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목포 한국병원 쪽으로도  
아마 갈 겁니다.



남자 2 : 예. 헬기 이송이나 중환자 이송은 목포 한국병원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의료정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속 연계를 할지 혹시 담당자분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,

남자 1 : 따로 없습니다. 이쪽으로 연락하시면, 여기다 수시로 한 번씩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
남자 2 : 아, 예. 팽목항으로, 언제쯤 그러면 서거차도에서 환자를 팽목항으로 이송하실 계획인가요?

남자 1 : 일단은 구조가 시급하니까 이동시간은 정확하게 우리도 파악이 안 됩니다.

남자 2 : 예. 팽목항 대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요?

남자 1 : 예.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팽목항하고...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8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항공팀장 / 목포서 항공대 임형장 / 목포서 항공대 최재영

임형장 : 항공대 임형장 경사입니다.

남자 1 : 그래, 최재영 경위 좀 바꿔줘 봐.

임형장 : 잠시만요. 지금 본청 통화 중이거든요. 전화하라 하겠습니다.

남자 1 : 아니야. 지금 전화해 주면 안 되고, 임형장 경사가 이거 전달 좀 해.

임형장 : 예.

남자 1 : 지금 남해청에서 CN235로,

임형장 : CN235요?

남자 1 : 응. 12시에 도착할 거거든. 남해청 특공대 12명 인원, 장비를 싣고 거기 온다고.

임형장 : 예.

남자 1 : 그다음에 31사단, 육군 31사단 헬기 2대가, UH 2대가 와 있을 거야. 그러면 그 2대에다가 인원, 장비를 실어가지고 현장에다 투입을 시키라 이거야.

임형장 : 아, 예. 그렇게 전하겠습니다.

남자 1 :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

임형장 : 예. 우리 목포항공대로 올 거지요?

남자 1 : 목포항공대로 그 사람들이 잘 모를 거 아니야. 그러면 안내를 해 줘야 된단니까. CN235는 고정익은 남해청 거고 그거 해가지고 인원이 12명이 내리면 그 인원을 통솔해가지고 육군에 UH... 최 주임 바꿔줘야 될 텐데.

임형장 : 잠깐만요.

최재영 : 예. 최재영 경위입니다.

남자 1 : 다른 게 아니고, 남해청에서 지금 12시에 CN235가 특공대 인원하고 장비 12명하고 장비를 싣고 와. 목포항공대에 착륙하면 그걸 통솔을 해 줘가지고,

최재영 : 그걸 어떻게 합니까?

남자 1 : 그 사람들이 내리면 안내요원들이 없잖아.

최재영 : 그러니까 그 사람... 예. 말씀하십시오.

남자 1 : 그러면 그 안내를 해 줘가지고 31사에서 온 까모프 2H, 1H 두 대가 거기 착륙해 있을 거야.

최재영 : 예, 예.

남자 1 : 그러면 그 2대에다가 그 사람들 태워가지고 저쪽에다 투입을 시키라 이 말이야, 사고 현장에다가.

최재영 : 아, 현장에 가는데 그러면 1H에서 서거차 방파제에다가 내려줘야 되겠네요?

남자 1 : 아니, 그 사고 현장으로 바로 투입하면 안 되고?

최재영 : 아니, 그러면 UH는 착륙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?

남자 1 : 그걸 내려줘가지고 우리 502가 후송을 떠줘야 되는데?

최재영 : 그 사람들이 31사단에 UH가 2대가 오면 이거는 해상에 바로 내려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

남자 1 : 아...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우리 502를 불러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. 목포 항공대로 불러가지고.

최재영 : 아... 구조 투입을 하는 사람들이 장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... 뭐 호이스트를 가지고 타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까? 아니면 그냥 인원만 오는 겁니까, 인원만?

남자 1 : 인원하고 장비가 들어가지. 산소통하고 이런 게 있지.

최재영 :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려... 아마 31사단에서 오면 호이스트가 없을 텐데

요. 군산 게 내려옵니까?

남자 1 : 군산 거는 지금 501 현장에 투입했어.

최재영 : 아... 그러면 군산 까모프로 이렇게 현장에 호이스트로 그 사람들을 내려주는 게 더 나을... 그거 한 가지 방법이고요. 두 번째는 31사단 UH가 온다고 하면 서거차 방파제에서 내려주는 거 말고는, 현장에 바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요.

남자 1 : 아~ 그러면 잠깐만.

내가 다시 전화할게.

최재영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3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전남119 상황실

남자 1 : 예.

여자 1 : 여보세요? 예. 전남119 상황실인데요.

남자 1 : 본부장님이 서해청장님하고 통화하시려고 그러는데 휴대폰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.

남자 1 : 잠시만요.

여자 1 : 예.

여보세요? 여보세요?

남자 1 : 예. 잠시만요.

여자 1 : 예. 빨리 좀 해 주십시오.

남자 1 : 여보세요?

여자 1 : 예.

남자 1 : 예. 잠시만 이따가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? 지금 곤란해서, 지금 현재.

여자 1 : 아니, 지금 무지 \*\*

남자 1 : 아니, 지금 다시... 잠시만요.

예. 지금... 여보세요?

여자 1 : 예, 예.

남자 1 : 지금 좀 통화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

여자 1 : 아니, 본부장님이 직접 하신다니까요.

남자 1 : 예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, 지금 현재는.





여자 1 : 아니, 번호를 줘보세요.

남자 1 : 예. 죄송합니다. 지금 좀 통화 힘들 것 같습니다.

여자 1 : 아, 지금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시게 번호 좀 주시라고요. 기관장님들  
끼리 현장 상황 통제 때문에 전화를 하시겠다는데 안 되시는가요?  
여보세요?

남자 1 : 여보세요?

여자 1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010-5310-7060.

여자 1 :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?

남자 1 : 김수현 청장입니다.

여자 1 : 김주현 씨요?

남자 1 : 수현, 수.

여자 1 : 아, 김수현 청장님.

남자 1 : 예.

여자 1 : 알겠습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2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6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

남자 2 : 예. \*\*입니다.

남자 1 : 예. 김학수 경사입니다.

남자 2 : 응.

남자 1 : 청장님 지시사항으로, 지방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목포에다 상황대책본부 설치 지  
금 하라 그러거든요.

남자 2 :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.

남자 1 : 예.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 주십시오.

남자 2 : 응.

남자 1 : 예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





◆ 녹음 순번 : #2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8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본청 언론대책반

남자 2 : 예. 서해청 박 경사입니다.

남자 1 : 예. 안녕하세요? 여기 본청에 언론대책반인데요.

남자 2 : 예. 말씀하십시오.

남자 1 : 예. 11시에 서해청장님 브리핑 하실 때 전체 승선원을 몇 명으로 발표했는지. 지금 474하고 477,

남자 2 : 잠시만요. 언론대책반이면 홍보계가...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 
여보세요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뭐라고 하셨습니까, 아까 처음에?

남자 1 : 전체 탄 승선원이 477인지 474인지. 우리 서해청에서 발표한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일단,

남자 2 : 477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. 그렇게 보고 됐습니다.

남자 1 : 477이죠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2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본청 콜센터

남자 1 : 예. 서해청입니다.

여자 1 : 예. 본청 콜센터인데요. 사고대책반이 목포해경청에 돼 있어요? 아니면 서해청으로 돼 있어요?

남자 1 : 대책반이요?

여자 1 : 예, 예.

남자 1 : 대책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

여자 1 : 지금 서해청에는 따로 대책반이 돼 있는 건 없어요?

남자 1 :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목포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서해청에도 있고요.

여자 1 : 아, 왜냐면 민원인들이... 그러면 그쪽은 민원인들이 가시면...

남자 1 : 잠시만요.

여자 1 : 예.

남자 2 : 예.

여자 1 : 안녕하세요? 본청 콜센터인데요.

남자 2 : 예?

여자 1 : 본청이요. 본청 콜센터인데, 전화가 많아서 그러는데요. 지금 사고대책반이 되어 있냐고 문의가 많이 오세요.

남자 2 : 예. 지금 대책하고 지금 다 수집하고 있죠.



여자 1 : 그러면 그게 지금 서해지방청, 목포 이런 데 상황실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?

남자 2 : 그렇죠.

여자 1 : 아, 그런데 그러면 단원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가시겠다고 하는데, 대책반에 만나러 가시겠다고는,

남자 2 : 예? 예? 언제요?

여자 1 : 전화가 왔는데요. 대책반 쪽으로 직접 가시고 싶다는데 그러면 그거를 서해청으로 가셔야 돼요, 아니면 목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?

남자 2 : 아니, 우선 지방청하고 목포서가 지금 목포에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하고 하는데,

여자 1 : 예, 맞아요. 얘기는 저희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, 만약에 대책반에 찾아가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, 그 학교에서요.

남자 2 : 아, 그래요? 지금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

여자 1 : 예. 저희 구조가 먼저니까.

남자 2 : 우선은 목포서하고 지방청 여기에 지금 하고,

여자 1 : 상황실 쪽에 하고 계신 거죠?

남자 2 : 예,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뭐라 모르겠네요. 우선,

여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예. 수고하세요.

여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3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YTN 기자

여자 1 : 예. 안녕하세요? YTN의 홍수희 기자입니다.

남자 1 : 여보세요? 지금 상황이 좀 바쁘거든요.

여자 1 : 예. 알아요.

남자 1 : 짧게만 해 주세요. 무슨 내용이에요?

여자 1 : 홍보계 몇 번이에요? 홍보계, 홍보팀 전화번호요.

남자 1 : 홍보계 저기에 나와 있을 건데. 잠시만요.

여자 1 : 예, 예.

남자 1 : 2212번입니다. 2212번이요.

여자 1 : 예. 감사합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3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4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

남자 2 : 여보세요? 서해청입니다.

남자 1 : 예, 안녕하세요?

남자 2 : 여보세요?

남자 1 :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입니다.

남자 2 : 예?

남자 1 :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고요.

남자 2 : 무슨 일이십니까?

남자 1 : 의료기관 담당하고 있고 재난의료 담당하는 담당자이고요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아, 예. 혹시 서거차도에서 직접 목포항으로 병·환자 이송한 배가 있나요?

남자 2 : 아니, 지금 이송 중에 있어요.

남자 1 : 서거차도에서 목포항으로요?

남자 2 : 아니요. 목포 쪽으로 안 들어가고 진도 쪽으로 가야죠. 서거차에서 진도가 제일  
가깝기 때문에 진도로 가야 됩니다.

남자 1 : 목포로 간 배는 한 배도 없다고요?

남자 2 : 예, 예.

남자 1 : 그러면 다 진도 팽목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?

남자 2 : 예, 맞습니다.

남자 1 : 목포항으로는 아무것도 이송하지 않는다는 \*\*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남자 2 : 예.







◆ 녹음 순번 : #3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9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남자 1

남자 2 : 서해청입니다.

남자 1 : 여보세요?

남자 2 : 여보세요?

남자 1 : 여보세요?

남자 2 : 어딘데 전화하십니까? 어디세요? (전화 끊김)





◆ 녹음 순번 : #3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2시 01분

◆ 대 화 자 : 서해청 상황실 / 여자 1

남자 1 : 여보세요? 서해청입니다. 여보세요?

여자 1 : 예, 안산시 단원고 학생이요. 혹시 생존자 명단 혹시 돼 있어요?

남자 1 : 지금 확실히 안 나옵니다. 확실히 안 나옵니다.

여자 1 : 확실히 안 나오면 뭐 하러 전원 구조 됐다고 그래요?

남자 1 : 예?

여자 1 : 전원자 구조됐다고 했잖아요.

남자 1 : 여보세요? (전화 끊김)

